

Wendy L. Widder 박사, Daniel, 세션 4, 다니엘 1

© 2024 웬디 위더(Wendy Widder)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다니엘서에 대해 가르치는 Dr. Wendy Widder입니다. 4회차, 다니엘 1장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다니엘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을 위해 그 장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본문은 주로 듣기 위해, 듣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원래 청중이 이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잘 교육받은 서기관들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외웠다.

그들은 그것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따라서 텍스트의 많은 특징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가르칠 때 본문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성경 내러티브 읽기, 성경 이야기 읽기, 성경 역사 읽기에 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것이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의 목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마치 과학책인 것처럼 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좋은 이야기들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성경 본문을 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해해 줬으면 하는 것은, 그것이 역사이건 아니건, 그에 대한 당신의 입장이 어떻건, 성경 이야기는 단지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한두 가지 주요 요점을 전달하기 위해 세심하게 제작된 문학 작품입니다.

성경의 경우에는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역사, 역사적입니다. 그것은 문학과, 신학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한 권의 책에 담겨 있습니다. 신학으로서 우리가 의미하는 바는 그것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자기 계시이고, 자기 백성에게 자신에 관한 자기 계시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생각에 빠져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영웅과 악당 또는 일어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에 관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인가요? 물론, 그것은 역사적 사건을 대표하지만 그것이 주요 요점은 아닙니다. 그 목적은 우리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며, 세심하게 만들어진 이야기를 통해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내러티브를 연구하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고민할 때 제가 머리 속에 간직하고 싶은 정의는 성경의 저자들, 즉 하나님의 감독하에 성경을 쓴 인간 저자들이 성경의 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계시를 전달하기 위해 문학적 기법을 통해 창의적으로 형성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작품, 문학 작품을 제공하지만 초점은 이 책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고안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좋은 문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문학입니다. 훌륭한 문학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잘 만들어진 이야기가 되도록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위해 그 이야기를 짜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에 관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계시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다. 좋습니다. 그럼 1장, 다니엘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영어표준역(English Standard Version)을 읽고 있습니다.

나는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이 버전이나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히브리어가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가장 읽기 쉬운 번역은 아닙니다. 이를 위해 아마도 NIV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단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저자가 어떻게 그 단어를 조합했는지 알아보려고 할 때는 ESV나 NASV와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는 ESV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어, 다니엘 하나.

1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삼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2**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시날 땅 자기 신의 전으로 가져가고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창고에 두었습니다. **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 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오게 하고 **4**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에 능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능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주며 그들에게 갈대아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느니라 **5** 왕은 자기가 먹는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를 그들에게 매일 할당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나면 왕 앞에 서게 되어 있었습니다. **6** 그 중에는 유다 지파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있었습니다. **7**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지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으며

8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환관장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9**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관장 앞에서 은혜와 긍휼을 주시매 **10**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나는 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정해 주신 내 주 왕을 경외하노라 어찌하여 그가 이 일을 네가 또래의 소년들보다 상태가 더 나으니 네가 왕 앞에서 내 머리를 위험하게 하려느냐? **11** 다니엘이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청지기에게 이르되 **12**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십시오.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13** 그런즉 당신들은 우리의 용모와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용모를 관찰하여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14** 그래서 그는 이 문제에 관하여 그들의 말을 듣고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하였다. **15** 열흘 후에 보니 그들이 왕의 음식을 먹는 모든 소년보다 용모가 더 좋고 살이 더 살찌더라 **16** 그래서 청지기는 그들의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야채를 주었습니다.

17 이 네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학문과 모든 학문과 지혜를 주셨으므로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18** 기한이 끝나서 왕이 그들을 데려오라 명하매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라 **19**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왕 앞에 섰습니다. **20**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 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21**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거기에 있었더라.

자, 1장에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장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전 몇 강의를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다니엘서의 배경을 성경의 연대표와 그것이 유대 역사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면 여기에서 압축된 버전을 작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도착했을 때는 기원전 609년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쪽 왕국의 왕이었고 그는 아시리아인들이 바빌로니아인들과 싸우거나 바빌로니아인들과 싸우는 것을 돕기 위해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중에 파라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바로가 그를 폐위시키고 요시야의 둘째 아들로 삼을 때까지 석 달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계속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바로 느고가 그를 폐위시키고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 왕이 될 때까지 단 3개월 동안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라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에게 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호야김은 새로운 왕입니다. 그는 이집트의 가신, 즉 느부갓네살이 이집트인들을 패주시켰을 때 남쪽 왕국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많은 역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겠습니다.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의 치하에서 3년 동안 바벨론의 봉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반역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에 반역했을 때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시기는 대략 BC 598-597년경이었으며, 그 내용은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원전 598-597년에 느부갓네살의 진노가 반역으로 인해 여호야김에게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24장에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여기 도중에 죽은 것으로 보이며 우리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갑자기, 본문에서는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죽고 왕이 되었으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항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왕이 될 세 번째 아들을 얻습니다. 이 사람은 시드기야입니다. 그는 새로운 왕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609년에 죽고, 첫 번째 아들이 왕이 되고, 그가 폐위되고, 두 번째 아들이 왕이 되고, 그가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는 포로로 잡혀가고,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실제로 시드기야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여기서 왕들의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중해, 나일 강, 이집트, 그 사이의 땅은 갈릴리 바다, 요르단 강, 사해, 페르시아 만,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이므로 끝났습니다. 여기 바벨론에서요.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권력 다툼이 있습니다. 바벨론과 이집트가 있고 그들이 갈등을 겪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중간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쪽으로 가지 않는 걸까요? 글썄, 여긴 다 사막이야.

그래서 모든 여행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 면에서 제국 간의 권력 투쟁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통치하고 있는 왕이나 통치하는 권력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의 첫 번째 절이 바로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의 권력 다툼에 휘말리게 되고 여호야김은 사라지지만 그는 포위당합니다. 예루살렘은 느부갓네살에게 포위당합니다.

연대적으로 보면 605년이다. 그러므로 여호야김 3년은 BC 605년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역사적 어려움입니다.

여호야김 3년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여, 내가 이 죽은 왕들을 모두 없애게 하소서. 우리는 여호야김과 느부갓네살의 편을 들겠습니다.

기원전 605년, 올해는 여호야김 3년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기억할 필요가 없는 그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죽자 바빌론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메모를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포위 공격이 기원전 605년에 일어나려면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시리아-팔레스타인에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바빌로니아 기록에 따르면 우리는 당시 이곳에서 느부갓네살을 실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연대순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거나 정복했다는 언급도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군대의 장군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왕이다.

그는 시리아-팔레스타인 지역을 돌아다니는 동안 2인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선거운동 중에 사망했고 그는 대관식을 위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포위 공격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다니엘서의 저자가 사건들을 통합하여 전체 역사를 함께 짓밟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시간, 승천 연도, 재위 연도를 기록하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 1절에는 여호야김의 삼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 1장 1절의 배경은 여호야김 3년인 BC 605년이다. 예레미야 25장 1절로 돌아가 보면 예레미야 25장은 여호야김의 4년을 느부갓네살의 1년으로 언급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호야김의 4년이 느부갓네살의 첫 해라면,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기 전에 아마도 무언가를 포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그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분류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을 겪는 불일치입니다. 학자들이 이것을 정리하는 경향이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승천 연도나 왕의 즉위를 설명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니엘 1장 1절에서 볼 수 있는 바벨론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체제에서는 왕이 왕위에 오르는 기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그의 공식적인 첫 해는 실제로 그의 왕좌에 오른 두 번째 해입니다. 그리고 2년차와 3년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승천 연도는 별도의 해, 즉 1년, 2년, 3년으로 계산됩니다. 이것이 바빌로니아의 통치 연도 계산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반영했다고 생각하는 유대 제도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므로 유대식으로 연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보면 승천년은 첫 해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좌에 오릅니다. 그것도 1년, 2년, 3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도착할 즈음에는 4학년이 됩니다.

따라서 왕좌에 앉은 기간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회계 체계가 다니엘서나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야김 3년이라고 하면 그것이 바벨론 체제입니다. 예레미야가 4년차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유대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왕좌에 오른 같은 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날짜 어려움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605년 여호야김 제3년은 느부갓네살의 승천년과 일치한다.

다시 한 번 어려운 점은 605년 예루살렘 포위 공격에 대한 역사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기록에는 그 당시 느부갓네살이 그곳에 있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등장한 것은 꽤 뻑뻑한 연대기입니다.

우리는 그가 605년 초에 시리아-팔레스타인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루살렘이나 여호야김에 대한 기록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해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는 자신의 대관식을 위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605년 시리아-팔레스타인 원정과 605년 그의 대관식 사이에는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1.1절은 실제로 느부갓네살의 참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될 수 있으며, 만약 그의 군대가 침공했다면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침공했다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침략한 사람은 느부갓네살이다. 또한 공식적인 군사 포위 공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단지 적대감을 나타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80년대 학자와 트렘퍼 롱먼(Tremper Longman)이 주장한 주장으로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느부갓네살은 당시 여호야김을 실제로 공격하지 않고도 항복하도록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적개심의 행위는 그것이 무엇이든간에 그가 그의 백성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굴복하도록 설득하기에 충분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 1:1은 충성심의 변화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애굽의 속국을 그리워하는 대신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하기로 결심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제3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호야김 제3년에 대한 언급은 그의 통치 제3년이나 심지어 그의 속국 제3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제3년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601년에 느부갓네살에게 반란을 일으켜

유대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1장에 묘사된 이 포위는 597년에 일어난 열왕기하에 묘사된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를 다루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역사적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는 해당 장의 요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텍스트가 의미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하고 분류해야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논쟁이 실제로 매력적인 점 중 하나는 여호야긴이 반역한 지 3년이 되는 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3년 후인 597년, 598년 601년에 반역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와서 실제로 사람들을 다시 포로로 잡았을 때, 그 해는 598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역사적 자료가 있는 것과 동일한 포위 공격이 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다니엘서에는 첫째 해와 셋째 해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여호야긴 왕 3년입니다. 다니엘 7장과 8장에 이르면 벨사살 원년과 벨사살 제3년이 나온다.

고레스 원년, 다리우스 메데 원년, 고레스 제3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딩게이는 실제로 그것이 왕의 통치 초기나 왕의 통치 초기, 그리고 왕의 통치 초기에 언급하는 본문의 방식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라기보다는 그냥 '에, 시작 부분에 에, 그가 왕이 된 지 꽤 됐을 때'라고 말하는 일종의 문학적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첫째와 셋째, 셋째, 첫째의 패턴을 봅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다니엘 1장 1절이 587년의 포로 추방, 그리고 597년의 마지막 포로 추방, 그리고 587년의 포로 추방을 압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서의 저자가 세 가지 다른 추방을 할 수 있습니다. 1은 모든 것을 한 덩어리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걱정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정확한 연도가 무엇이든, 여호야김 3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계없이 다니엘 1.1절은 이 책에 나오는 사건의 시작점을 설정합니다.

특히 1장부터 6장까지의 내러티브 스토리에 적합합니다. 다니엘 1장 21절은 다니엘이 섬기던 자에 대한 언급으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법정에 있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종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강제 추방 기간입니다. 즉, 제가 의미하는 바는 605년에 바빌론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기 시작했고, 539년에 페르시아가 점령하면서 키루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이 떠나는 것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강제 추방 기간으로,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땅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539년에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다니엘 1장의 날짜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성을 포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의 집 그릇 중 일부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이 그릇들은 벨사살이 등장하는 5장에서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박은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찬식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신성한 그릇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씻어서 치우고, 다음 달에 꺼내서 사용하고, 씻어서 버립니다. 우리가 이것이 신성한 것, 신성한 물건인 것처럼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물건들은 매우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역사서에는 이 선박이 어디로 가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6장과 예레미야 52장을 읽으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박이 갔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갔던 이 모든 배들을 보십시오. 유배의 반대편에서, 유배 이후의 책들은 돌아오는 선박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종종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로 인해 이 그릇은 유대 민족에게 중요합니다. 여러 면에서 그들은 회복에 대한 희망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약속했습니까, 아니면 백성들에게 포로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선박은 갈 것이고 거기에 머무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그릇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유일하게 실제적으로 남은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거룩한 성은 파괴되었지만 그 그릇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그릇들 중 일부를 바벨론으로 끌려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글쎄, 그것은 실제로 매우 중요한 진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그릇 중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시매 그가 그것을 자기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니라. 고대 세계에서 왕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는 것은 단순한 군사적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싸움이군요. 왕은 그의 하나님을 대표하며, 그는 그의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고 그의 권세를 확장하기 위해 그의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울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갈등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패하거나, 느부갓네살이 여호야קים을 패할 때,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패한 것으로 보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건 큰 일이에요. 이것은 단지 우리가 전투에서 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만큼 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는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그릇들은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의 전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것들을 어디에 두었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는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승리하신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패배하신 하나님의 그릇을 가져다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그 속한 곳에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박 이동은 종교 측면에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물리친 마르둑입니다. 아니면 그럴 것 같습니다. 본문을 주의깊게 읽거나 본문을 주의 깊게 들어보면, 그것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물리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승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왕을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그릇을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상황이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고 겉보기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서술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것을 통제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통제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중요한 진술입니다. 이것은 단지 왕 대 왕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대문자 G)과 신(소문자 g)입니다. 작은 G 신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저자는 그러한 생각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Marduk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느부갓네살 외에 주요 인물들을 만납니다. 우리에게는 궁정 장관인 아스파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정도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무엇을 했을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귀족 중 일부를 바빌론으로 다시 데려오라는 왕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들을 바빌론으로 데려오는 목적 중 하나는 그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들은 그들을 교육하고 싶어할까요? 이것은 단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언어와 문학에 따라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 여러분을 문화화할 수 있도록 바빌론에 있는 학교에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글썄, 그들은 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일은 이 사람들을 뛰어난 공무원으로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반항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집에 가고 싶어할 것입니다. 바빌론에서는 좋은 직업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고국은 아마도 가족이 바빌론에서 보호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덜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일종의 외교적 인질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들은 아마도 십대일 것이다. 그들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가르치기 더 쉽습니다. 그들은 더 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곡물의 크리를 떠냅니다. 그는 그들을 교육하고 싶어합니다. 그분은 그들이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이 호스트 국가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어는 배우기 정말 어려운 언어인 아카드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맙게도 나는 그것을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쁘다. 하지만 참 어려운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카드어를 배워야 했던 이유는 그들의 문화적 이야기와 역사 모음집 전체가 모두 아카드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마도 고전 역사를 공부하려면 라틴어를 배워야 하는 것과 유사할 것입니다. 원본인 라틴어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아카드어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마스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언어를 익히는 동시에 문학도 익히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신화, 믿음, 세계관을 마스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젊은이들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종으로 만들고 싶어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실제로 세뇌되어 선한 바벨론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들을 고국에서 데려왔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선한 바벨론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의 또 다른 부분은 그들에게 할당된 식단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매일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그들은 왕 앞에 서거나 왕을 섬기는 일을 하여 왕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중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소년이 이 네 명 외에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 귀족들 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왕족은 유다 지파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네 사람이요 따라서 1장에서 우리가 따라갈 이 네 명의 청소년이 있고 나머지 법정 이야기는 대부분 다니엘에 관한 것이지만 세 친구는 몇 번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외에도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유다 지파 출신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약의 백성이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잊지 않도록 그 내용을 거기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 텍스트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를 알고 있거나 구약을 공부한 적이 있다면 이 이름들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름을 선택하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신을 찬양하는 문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 도우셨느니라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왜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질까요? 글썄, 당신은 그들의 신을 기리는 히브리어 이름을 가진 공무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바빌로니아 신들을 기리는 이름을 그들에게 부여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들이 다른 왕에게 복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 새 왕, 새 나라, 새 신들에게 복종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포로로 잡혔을 때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흔한 법정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선한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그들이 새로운 소유권을 갖게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7절 끝부분에는 여호와의 성전 그릇 중 일부와 왕궁으로 향하는 인간 그릇 중 일부가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은 우리를 실제 줄거리로 안내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모두 다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줄거리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결심하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글썄요, 우리는 다니엘이 무엇을 했는지 압니다. 그는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깊은 개인적인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왜 음식이 더럽혀졌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음식, 곧 음식과 포도주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음식이 왜 더럽혀졌는가입니다. 구약성경에는 더럽혀진 것들에 관한 온갖 종류의 사상이 있습니다.

레위기와 에스겔서에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깨끗하지 않고 성전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호세아에 따르면 외국에 사는 것 자체가 더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은 다 더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음식에 관해 구체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이름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교육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그들이 먹는 음식은 그들의 입장입니다. 무엇이 이 음식을 더럽혔는지에 대해 다양한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제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음식이 왕궁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절했을 가능성이 있고, 왕궁 음식은 성전을 경유해서 왔을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성전에서 나왔다면 우상에게 바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그것이 야채에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궁전 음식은 모두 성전에서 나왔을 것이고, 따라서 더럽혔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먹지 않는 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그 궁전, 바벨론 궁전은 물론 토라의 음식법을 지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만들 수 있었던 것, 어떤 동물을 먹을 수 있었는지, 어떤 동물을 먹을 수 없었는지, 어떻게 동물을 죽였는지 등 토라에 따르면 특정한 방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바벨론 왕궁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었을 것이므로 그것은 더럽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이 고기와 포도주를 더럽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포도주가 더럽혀졌을까요? 토라에는 포도주가 왜 더럽혀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동물은 문제의 초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왕궁의 고기와 포도주가 축제 음식이었기 때문에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다니엘이 그것들을 멀리했다면 그는 유배 생활과 관련하여 자신이 겪었을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포로된 사람이 잔치를 베풀거나 음식을 먹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귀족에게 적합한 종류의 음식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농민 음식, 실제로는 야채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왜 더럽혀지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축제음식이라 먹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게 더럽게 되는 건 아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결국 나는 Tremper Longman의 솔루션을 좋아합니다. 트렘퍼는 히브리 청소년들이 음식을 거부하거나 먹는 음식을 통제함으로써 누가 그들을 부양할지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하루에 세 번씩 풍성한 음식, 왕의 식탁의 건강에 좋은 음식, 왕의 식탁의 가장 좋은 음식으로 영양을 공급받는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왕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그 대신에 그 당시 최고의 식단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야채를 선택함으로써 그들은 저녁 식사 종이 울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탱하시는 분이심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야채를 먹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그것의 더러운 성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거부한 동기가 무엇이었던, 더 큰 문제는 신학적인 것입니다. 좋아요? 그것은 신성한 양육과 인간의 양육에 관한 것입니다. 이 청소년들은 생계를 위해 무엇에 의존하고 있으며,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들을 지탱할 것인가? 여기에는 약간의 주의 사항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다이어트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말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야채는 더 건강합니다.

나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나는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다니엘의 식단을 따라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는 사물을 묘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우리를 위해 한 일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야채를 더 많이 먹고 싶다면 의사가 기뻐할 것입니다. 당신은 행복할 것입니다.

때로는 더 많은 야채가 더 좋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그 내용은 제쳐두겠습니다.

괜찮은. 따라서 문제는 그들이 왜 그것을 거부했는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왜 더럽혀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생계를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습니까? 괜찮은.

9절.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이 왕의 신하들과 교류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이것을 하지 말며 이것을 먹지 말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관장 앞에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읽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그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당신의 요청을 존중하겠습니다. 오른쪽? 다니엘이 부탁을 합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관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괜찮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환관장이 이르되 나는 왕을 두려워하노라 하니라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내시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좀 흥미롭네요.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신 장에서는 두 번째이기도 합니다. 먼저, 그는 그의 왕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들을 다스리는 관리 앞에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과 작은 일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가 세계사죠?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권세, 예루살렘의 멸망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의 신하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신하는 다니엘이 요구하는 것이 반역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니엘에게 받은 호의는 그가 그것을 그냥 놓아버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그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를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다니엘, 다니엘은 무엇을 하나요? 글썄, 그는 현명하게 행동합니다. 지혜는 옳은 일을 하는 올바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옳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그는 그것을 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그 직속 다른 관리에게 다가가서 당신의 종들을 10일 동안 시험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래서 이제 그는 단지 10일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10일만 주세요. 이 사람은 다른 공무원이고 아마도 더 하급 공무원일 것입니다. 아마도 야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만큼의 시간이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은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그는 그들의 말을 듣고 10일 동안 테스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말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나는 해설자들의 말을 들었고 그들 중 한 명입니다. 왕의 식탁에서 나온 풍성한 고기와 포도주 4인분을 야채로 교환함으로써 그 관리가 그 식사를 집으로 가져갈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는 그것으로 약간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저 상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상황을 헤쳐나가며 자신의 길을 헤쳐 나갑니다. 그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합니다. 그는 옳은 일을 하고 그 일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행하므로 다니엘이 존경을 받습니다.

그는 호전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불쾌하지 않습니다. 그는 현명하다.

물론 이 결과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10일간의 테스트 끝에 10배 더 나은 결과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좋은 과장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다른 모든 젊은이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17절로 가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네 소년에게 하나님께서는 학문과 모든 학문과 지혜를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유배 생활 중에도 그들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는 그들을 그곳으로 데려온 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다니엘이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참여했고, 이제 그는 이 외국 환경에서 탁월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그들에게 제공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이해력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들었고, 그것이 다음 몇 장을 위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2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왕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7에 도달했을 때, 실제로 꽤 흥미로웠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7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왕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종이며, 왕은 그들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낫고 다른 모든 신하보다 낫다고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러티브 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제3년에 그가 거기 있었고 다니엘도 고레스 제1년까지 거기 있으면서 왕궁에서 섬겼더라. 첫 번째 장은 책 전체에 대한 소개이다.

우리는 캐릭터를 만난다. 우리는 모든 사건에 대한 맥락을 얻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핵심 주제 중 일부를 골라낼 수 있으며 일련의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과 이 책은 망명자와 디아스포라 사람들을 위한 많은 중요한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고향을 잃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성전을 잃었고, 왕을 잃었으며, 그들의 신을 잃은 것처럼 보이며, 그들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망명 생활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 신은 어떻게 졌나요? 글썄요, 다니엘 1장은 당신의 신이 패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신이 당신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9장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런 낯선 삶의 방식에 문화화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글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공을 주십니다. 자,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약속은 아니지만 이것은 그들이 고국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격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이 더러움을 피하고 그들의 군주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승리하실 것인가? 왜 하나님은 때때로 자신이

나쁜 모습을 보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망명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첫 장에는 온갖 종류의 큰 아이디어가 우리에게 던져지고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상호 작용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대답할 것입니다. 그 중 일부는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볼 문제를 남겨두겠지만, 핵심 주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역사, 큰 역사, 사람의 삶, 작은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나는 그것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헤드라인 뉴스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나의 작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의 원동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G 하나님과 큰 G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신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신들 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작은 k 왕 대 수도 k 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유배 생활에서 번성하는 충실한 종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여러 면에서 신앙과 문화라는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적어도 이 첫 장의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활동적입니다. 신이 관여했어요.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실제로 누구 사이에 있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군주들 사이에 있습니까? 여호야김과 느부갓네살 사이인가? 아니요. 이것은 신과 작은 G 신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다니엘 1장에서는 누가 이미 하나님의 주권을 얻었는지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2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대해 가르치는 Dr. Wendy Widder입니다. 4회차, 다니엘 1장입니다.